

## 하부 중생대 남포층군에서 산출된 은행잎 화석

김종헌<sup>1\*</sup> · 서정렬<sup>2</sup>

(<sup>1</sup> 공주대학교 · <sup>2</sup> 소하중학교)

우리생활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생 은행나무(*Ginkgo biloba* L.)는 분류학상 나자 식물인 은행목에 속하며 현재 1과 1속 1종만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은행류는 중생대에 다른 나자 식물의 그룹들과 함께 범세계적으로 번영한 그룹의 하나이며 북반구와 남반구의 세계 각지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은행류 화석이 보고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하부 중생대 대동누층군에는 “대동식물군”이라 불리는 식물 화석군이 있으며 여기에는 은행류 화석이 14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은행류 화석은 모두 인상화석이기 때문에 분류시 기본적으로 잎의 형태적 차이가 주요한 기준이 된다.

화석 식물의 경우 화석으로 발견되는 잎의 형태는 같은 종이라도 어느 정도 변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화석상으로는 변이의 범위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단지 현생종과 유사한 종이 존재하는 경우는 현생 식물의 변이의 범위를 조사하면 화석식물의 경우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생 은행잎에 나타나는 변이의 형태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얻은 정보를 화석 은행류에 적용시켜 변이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현생의 은행잎은 환경 조건에 따라 잎의 갈라지는 정도와 분차 회수가 다르고 그 결과 열편의 크기와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대동누층군에서 산출된 은행잎 화석을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동누층군에서 보고된 *Ginkgo*, *Ginkgoites*, *Baiera*, *Sphebaiera*에 속하는 14종의 화석 은행류는 재검토 결과 *Ginkgo*, *Baiera*, *Sphebaiera* 의 3속 5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Baiera* 속에 속하는 잎의 형태는 현생 은행잎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변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3. 화석 은행류의 잎의 형태는 모두 대엽형이며 열편상으로 갈라진 잎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